

<서울대 청소노동자 죽음을 통해 본 한국 지식인사회의 빈곤>

2021년 6월 26일 토요일 서울대 관악학생생활관 925동에서 청소를 마친 이씨는 “씻고 가겠다”는 인사를 동료와 나누고 헤어진 뒤 연락이 끊겼다.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씨를 휴게실에서 발견했을 때 이미 숨진 상태였다. 이씨는 얇은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다.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이었다.

유족은 이씨가 기저질환 없이 평소 건강했다고 한다. 그녀는 2020년 건강검진 종합소견에서 ‘정상A’ 판정을 받았다. 참고로 서울대 청소 노동자에 지원하려면 ‘국민체력 100’ 검사에서 3등급 이상(만 65세 미만 성인 중 상위 70%)을 받아야 한다. 이씨는 당연히 그 기준을 충족했고, 그 내용까지 잘 알고 있는 남편은 “심장 기능은 정상인보다도 더 좋게 나왔다”고 기억했다. 그런데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이다.

심근경색은 과로사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다. 기저질환 없이 건강한 사람이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사망했다면 그가 처한 환경, 즉 노동환경을 살펴볼 수밖에 없다. 서울대에서 시설관리직으로 같이 근무하는 남편이 아내 유품을 정리하러 생활관에 들렀다가 동료들에게서 새로운 이야기를 들었다. 사고가 있기 26일 전(6월 1일) 관리자가 바뀐 이후 고인을 포함해 모든 청소노동자들이 힘들어졌다는 것이다.

감투 쓴 관리자

7월 7일 기자회견을 연 민주노총과 고인의 남편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공개적으로 끄집어냈다. 새로 부임한 기숙사 안전관리팀장이 청소노동자들에게 업무와 무관한 행동들을 요구했다. 난데없이 필기시험을 치르게 하고 회의 참석 시 ‘드레스 코드’를 강요하면서 필요 이상의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는 것이다.

이 소식은 언론과 소셜미디어를 뜨겁게 달궜다. 관리팀장은 필기시험에 “현재 속해 있는 조직의 명칭을 한자로 작성”하라는 문제와 “영어로 작성하라”는 문제, 그리고 개관 연도를 묻는 질문 등 청소업무와는 무관한 문제 열 개를 내고 문항 당 10점씩 채점해 빨간 팬으로 점수를 매겼다. 그는 필기시험장에서 “점수는 근무성적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는 안내문을 공지했고, 직원 중 한 명은 낮은 점수가 공개돼 동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한 사례도 있었다. 매주 수요일 오후 세시 반에 열린 ‘미화팀 업무회의’에는 드레스 코드가 등장했다. 남자 직원은 “정장 또는 남방에 멋진 구두를 신고 가장 멋진 모습으로,” 여자 직원은 “회의 자리에 맞게 최대한 멋진 모습으로 참석”하라고 요구했다.

당장 ‘갑질’ 논란이 일어났다. 모욕감을 안겨 심리적 노예상태로 만드는 일종의 가스라이팅이라는 비난도 있었다. 물론 필기시험과 드레스코드가 전부는 아니었다. 노조 발표에 따르면 안전관리팀장이 새로 부임한 이후 군대식 ‘청소 검열’이 시작됐다. 안전관리팀장 등 교직원 3~4명이 방학을 앞둔 22일부터 직접 현장을 방문해 청소 상태를 확인했다. 이씨는 이 검열에서 지적 받기 싫어서 숨지기 직전 이틀에 걸쳐 925동 전체 건물을 대청소했다고 동료가 증언했다. 그 시기 업무강도 또한 지나치게 강했다고 한다. 학교 측은 생활관 한 동에서 100리터 용량의 쓰레기봉투(봉투 당 최대 25kg)가 하루 평균 두 개 나온다고 했지만, 고인측은 6~7개까지 처리했다고 한다. 코로나 상황에 기말시험까지 겹치면서 학생들이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보직 교수들의 상황 인식

서울대의 보직 교수들이 소셜미디어에 이 사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기 시작하면서 논란은 들불 번지듯 확산됐다. 먼저 학생생활관의 직속 책임자인 구민교 학생처장(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과)이 기자회견 이틀 뒤인 9일 장문의 반박문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안타까운 죽음을 놓고 산 사람들이 너도나도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것이 역겹다. 악독한 특정 관리자 얘기는 모두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안전관리팀장의 2014년 논문 지도교수였던 행정대학원 모교수는 “이씨 죽음이 갑질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며 “노동자를 독려하고 직원으로서 품위를 지키게 하는 것도 갑질이라면 도대체 사용자 행위 중에 갑질 아닌 행위가 뭐가 있을까?”라고 항변했다. 기획시설부관장인 남성현 교수(지구환경과학부)는 “해당 관리자를 마녀사냥식으로 갑질 프레임을 씌우는 불미스러운 일이 진행되고 있어 우려가 크다”고 썼다.

서울대 인권센터가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은 하나같이 중간관리자인 안전관리팀장을 두둔하는 태도를 견지했다. 무엇이 이들을 움직였을까? 글 내용을 보면 ‘노조 참여’가 공론의 장으로 불러낸 결정적인 계기였음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구교수는 “유족은 순수하고 겸손한 분들인데, 노조가 개입하면서 일이 엉뚱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대가 “언론과 정치권과 노조의 눈치만 봐야 한다는 사실에 한 명의 서울대 구성원로서 모욕감을 느낀다”고도 적었다. 남교수도 “민주노총 일반노조 측에서는 이 안타까운 사건을 악용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노조를 탓하며 휘방꾼에 모리배 정도로 바라보는 시각은 20세기 권위주의 정권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보직 교수들은 서울대의 ‘명예’를 언급하면서 민주노총의 주장을 “허위”와 “왜곡”이라고 단정했다. 필기시험지와 드레스코드를 명시한 단톡 문자가 만천하에 공개된 상황에서도 조직원을 무조건 감싸는 데 급급했다. 특히 필기시험은 “업무 숙지를 위한 직무교육의 일부”이고, 드레스 코드는 “작업복 대신 퇴근복을 입으라는 의미”라고 강변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판단은 달랐다. 노동부는 7월 30일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일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었다”고 명시했다. “필기시험 문항에는 청소 업무와 관계가 없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됐고 행위자(관리팀장)는 근무평정 제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시험 성적을 근무평정에 반영한다는 내용의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시험 중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청소노동

자들의 복장을 점검하고 품평을 한 것도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봤다. “복무규정 등의 근거 없이 회의 참석 복장에 간섭하고 품평을 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계급의식 혹은 집단주의

이번 사건은 잘못된 조직문화와 열악한 노동환경이 빚어낸 결과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식인사회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폭로된 현장이기도 하다. 문제의 안전관리팀장은 2014년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논문을 쓰고 학위를 받았고, 그 지도교수가 학생처 보직 교수로 기속사 업무에 관여하고 있을 때 교직원에게 지원해 채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가 학생처에 입사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알 수 없으나, 길게 잡아 입사 8년차임을 감안한다면 이번 안전관리팀장 자리가 첫 번째 중간관리자 경력일 수도 있다.

그는 새 팀장으로 부임하자마자 전에 없던 조치들을 취했다. 청소 현장을 군대식으로 검열했고, 필기시험을 통해 직원들의 점수를 매겼으며, 복장까지 통제하려고 했다. 그가 어떤 배경과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 알 길은 없지만, 그의 관리방식은 1970~80년대 권위주의 시대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하다. 상대적 약자를 타자화함으로써 자기 지위를 공고히 하려는 일종의 계급의식이라 볼 수 있다. 이처럼 세세한 행동은 물론 복장과 생각까지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도대체 어떤 생각과 맥락 속에서 만들어진 것일까?

더 심각한 문제는 그가 속한 서울대 공동체의 대응방식이다. 구민교 학생처장의 최초 페이스북 글은 청소노동자를 상대로 한 필기시험과 드레스코드 사건에 대해 이미 숙지한 상태에서 씌어졌다. 그밖에 보직교수들도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기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 보직교수들의 이런 행동은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 이른바 ‘명예’라는 멋진 단어 뒤에 숨어 집단의 이익을 보호하려 드는 조직적인 방어 활동인 셈이다.

여기서 궁금한 대목은 안전관리팀장의 조치들이 개인의 일탈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조직의 묵인이나 방조 아래에서 이뤄진 것인지, 그도 아니면 조직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인지에 관한 것이다. 보직교수들의 대응 기조가 일관된 걸 보면 최소한 개인의 일탈 수준은 아닌 것 같다. 개인의 일탈이었으면 학생처가 직접 조사에 나서든지, 최소한 꼬리 자르기 방식을 취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최소한 서울대 행정조직의 방조와 묵인 아래에서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도저도 아니면 사후 담합이 이뤄지고 있는 것일지도.

다음과 같은 가정도 가능하다. 어쩌면 팀장의 조치와 그에 대한 당직자의 의견이 진심이지 않을까? 그들은 실제 “노동자를 독려하고 직원으로서 품위를 지키게 하려는” 선의로 그런 행동들을 요구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선의를 100% 인정하더라도 상대방 입장을 고려하거나 배려하지 않는 선의는 너무 쉽게 폭력으로 변질된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는 말도 있듯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진 이들이 앞세우는 선의와 명분은 너무 쉽게 억압의 기제로 작동한다.

인도의 카스트 문화를 고발한 영화 <화이트 타이거>는 계급간 차별이 선의만으로 해소되지 않음을 잘 보여준다. 주인공 발람은 인도의 최하층민으로 온갖 모욕을 감수하며 부자 집안의 기사로 일한다. 어느 날 그 집안에 미국에서 생활하던 둘째 아들 아속 부부가 나타난다. 부부는 하층민 발람을 대하는 집안사람들의 태도에 분노하면서 그를 친구처럼 대한다. 굴욕을 참지 말고 자기 인생을 개척하라는 진심 어린 조언도 한다. 그러나 아속 부부는 자신들이 저지른 교통사고를 발람에게 뒤집어씌우려는 가족들의 행동을 목인한다. 배신감을 느낀 발람은 폭우가 쏟아지는 교외에서 선량한 부자 아속을 살해한다.

국민교 학생처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기 직전인 2017년 1월 20명의 서울대 교수들과 함께 <코리아 아젠다 2017>이란 책을 펴낸 적이 있다. 그는 '헌정 위기와 공화주의의 복원'이란 제목의 글에서 공화주의 정신을 강조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온나라가 들썩일 때 썼을 것으로 짐작되는 그의 글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지금 누리는 부와 권력은 내 것이 아니라 잠시 공중으로부터 위탁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자신보다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이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소수자에 대한 갑질, 배려와 염치없음, 갑을 관계로 얽힌 삶 속에서 우리 모두가 때로는 피해자가 된다. 이로 인해 부와 권력의 세습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개인주의와 집단 이기주의가 판쳐 정치, 사회, 공동체 분과현상이 나타난다.”

한국 지식인사회의 성찰

이번 사건은 서울대로 대표되는 한국 지식인 사회의 빈약한 밀천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진공의 공간에선 훌륭한 철학과 언설을 구사하더라도 막상 자기 이해가 걸리면 집단의 논리에 매몰되고 마는 지식인의 허약한 실체가 폭로됐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지식인이라는 타이틀이 너무 값싸게 유통돼왔다. 이름 난 학교나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름나게 대접해주는 문화가 있었다. 그 문화가 모래 위의 누각 같은 성찰 없는 지식인사회를 만들었다.

스스로 성찰하지 못하는 집단은 더 이상 지식인사회라는 타이틀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 타이틀만 믿고 주위에서 질문하고 점검하기를 멈춰서도 안 된다. 지식인사회가 공동체에 기여하려면 그에 맞는 윤리의식과 소통 능력을 갖춰야 한다. 탁월한 지식을 가졌다 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에게 귀 기울일 의무는 없다. 지식인으로 공동체에 기여하기 원한다면, 생각뿐만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다가가는 방법 또한 함께 고민해야 한다.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의 주인공 레빈은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다. 그는 귀족 신분의 영주였지만 지주로 군림하기 보다는 농장 경영을 혁신해 농부들과 그 이익을 나누고 싶어 했다. 그러나 농부들은 지주인 레빈에게 곁을 주지 않았다. 레빈 또한 자기 진심을 농부들에게 보여줄 방법을 찾지 못했다.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한 레빈은 농부들과 함께 풀베기 작업에 몰두했다. 농부들의 노동에 그저 동참한 것이었다.

이때 레빈은 놀라운 경험을 한다. 풀베기, 즉 노동에 몰입하게 되면서 레빈은 시간의 흐름을

느끼지 못하는 경지에 이른다. 톨스토이는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했다. “낮이 저절로 풀을 베었다. 그것은 행복한 순간이었다. ... 낮 그 자체가 생명으로 가득 찬 육체를 움직이고 있기라도 하듯이, 일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데도 일이 저절로 정확하고 정교하게 되어갔다. 그런 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노동이 끝난 뒤 더 놀라운 일이 이어졌다. 그가 그토록 바라던 농민들과의 소통이 바로 그 순간 가능해진 것이다. 레빈은 농부들 곁에 자리를 잡았고, 농부들 또한 그들 주인을 어려워하지 않았다. 레빈은 농부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자신의 형보다 영감이 더 가깝게 느껴졌다.”

톨스토이는 인간이 얻는 최고의 행복은 사람들과의 ‘융합과 일치’라고 믿었다. 지식인의 행복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지식의 많고 적음으로 계층을 나눠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당장 눈앞에 크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지식인사회도 공동체 안에 존재함을 인정한다면, 스스로 공동체에 다가가 자기 지식을 공동체를 위해 사용할 때 비로소 존중도 받고 명예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지식인과 지식인 사회의 성찰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대다.